

사무엘기상·하의 중심 사상과
사무엘기상·하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5/9 월

롬 5:17, 21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 1:12-13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요 15:4-5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전 3:6-9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하나이지만,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자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골 3:17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5/10 화

삼상 10:25

25 곧이어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국의 법도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돌려보내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 6:10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 7:21

21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삿 21:25

25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

행 13:22-23

22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23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삼하 23:1-3

1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선포이며 높은 곳에 세워진 사람의 선포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이며 이스라엘에서 찬송시를 아름답게 부르는 이이다.

2 여호와와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 위에 있었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이는

5/11 수

삼상 8:5-7

5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지금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신데 아드님들은 어르신 길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6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 일 때문에 언짢아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말을 듣고 그들이 너에게 한 모든 말대로 하여라. 그들은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여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삼상 2:35

35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 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눅 1:31-33

31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32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33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이 무궁할 것입니다.”

히 1:8

8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 왕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왕의 왕국의 지휘봉은 올곧은 지휘봉입니다.

계 12:10-11

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5/12 목

삼상 1:11, 15

11 한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15 그러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 나는 영이 짓눌린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내 혼을 쏟아 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민 6:2-3, 8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고자 할 때에는

3 포도주와 독한 술에서 자신을 분별해야 한다. 그는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되고,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8 자신을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에게 거룩하다.

빌 2:12-13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엡 1:9-11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1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13 금**삼상 1:24, 27-28**

24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황소 세 마리에도 고운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함께 가지고 갔다. 비록 아이가 어려지만 한나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27 내가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 그 간구를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28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일생 동안 여호와께 빌려드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삼상 2:18

18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삼상 16:7, 12b-13

7 그러나 여호와와 사무엘에게 말씀하였다. “오모나 키의 크기로 평가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거절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나 여호와와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12b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다.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3 사무엘이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형제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와 영께서 그날부터 다윗 위에 세차게 내려오셨다.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갔다.

삼하 22:1-3, 47

1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내신 날, 다윗은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2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와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를 건져 내시는 분,

3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산성, 나의 피난처시니 나의 구주이신 주님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다네.

47 여호와와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드높여라.

5/14 토**마 6:33**

33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계 1:4-7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6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마 6:9-13

9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15 주일**계 5:5-10**

5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뿔 수 있습니다.”

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7 그 어린양께서 나아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8 어린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는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10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 22:12,14, 16-17

12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 주겠다.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걸음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이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